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8호 2025년 08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요!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7월 1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온(All)가족 행복 in 한(One)마음 가족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다양한 가족 400여명이 참석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다문화가족 소득 늘고 자녀의 대학 진학률 높아졌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난해 국내 다문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도 향상됐고, 국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중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자녀교육,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예요.

자녀 대학 진학 크게 높아져

다문화가족 1만60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집계됐어요. 2021년 40.5% 대비 무려

21.4%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예요.

일반 국민과의 고등교육 순취학률 격차도 줄었어요. 2021년 31%포인트에 달했던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국민 자녀 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3%포인트로 줄었어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2000년대 초중반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취학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월평균 소득도 크게 증가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도 3년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구 비율은 65.8%로 조사됐어요. 2021년 50.8% 대비 15%포인트 증가했어요. 전체 가구 중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구간은 23.9%로 집계

됐어요.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가구는 각각 12.4%, 10.4%를 기록했다. 해당 구간 가구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예요.

단순히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소득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직업 안정성은 높지 않아

다만 직업 안정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근로자 비중이 45.6%로 2021년 47.7% 대비 소폭 줄었어요.

직종별 분류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이 39.0%로 가장 많았어요. 이전 조사 때의 32.4%보다 증가한 수치예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월급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용근로자 비중이 작아졌다"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고용 안정성이 높은 분야를 더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문화가족 거주 기간도 늘어

다문화가구 정착 기간이 길어진 것도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가운데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구성원 비율은 52.6%로 나타났어요. 2021년 39.9% 대비 12.7%포인트 늘었어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에요.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서 '다양한 강점과 가능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6, 25, 3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0, 28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9, 1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5 영어(English) 13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30

정책 Policy 1, 2, 6, 13, 28 생활정보 Information 2, 4, 5, 9, 16, 17, 31 나의 학습 My Study 11, 23, 32 이주배경청소년 7, 14 행사 Event 12 경기외국인SNS기자단 9, 17 외국인주민 2, 3 국제교류 15 여가 Leisure 27 계절근로 18, 30, 33 소비 Consumption 6, 10 폭염 25 상담 Counsel 14 보험 Insurance 3 도서관 Library 4, 21 주거 Residence 15

"경기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3가지 특별한 혜택 확인해요"

‘경기 아이듬백 지원사업’, ‘배달특급 할인 프로모션’, ‘여성안심패키지’ 추가 접수 등



예비 부모의 출산 준비 책으로 지원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내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를 위한 도서 3권을 무상 제공하는 ‘경기 아이듬백(BOOK)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예비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준비 과정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 본인이 출산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되면 신

청 시 기재한 주소로 도서 3권과 임신·출산·육아 관련 경기도 정책 안내문이 함께 택배로 발송된다.

지원 도서는 육아 및 양육분야 전문가, 도서 전문가, 임신 중인 도민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도서들은 ▲육아 정보 제공 ▲부모 가치관 정립 ▲태교 및 건강 등의 내용을 담은 책으로 목록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특급 할인으로 든든하게 챙겨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말복 할인에 나서며,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말복의 정석’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까지 총 10개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기간 내 1인 1회에 한해 2만2천 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시 적용하면 사용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

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 ‘여성안심패키지’ 추가 접수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의 신청 접수가 저조했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시군별 잔여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여성안심패키지는 경기도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열림센터,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방범 물품으로 구성됐다.

추가 접수는 1차 모집에서 잔여 수량이 발생한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연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각 시군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시군별로 물품 구성과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 1인가구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박재용 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북부본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담당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과거 열악한 환경의 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다”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면 새로운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 체류를 촉진하게 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쉼터 지원사업을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병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비자 문제에 대한 행정적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재취업 대기 기간(3개월) 동안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 제안했고, 해당 사업이 채택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도는 2025년도 2차 공모를 통해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생활공간 개선 및 안전시설 보수 비용, 주·부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쉼터란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이다. 김영의 기자

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격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의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수료식이 7월 1일 수원중앙침례교회 솔로몬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상반기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이주여성들을 위

해 수원시발레단의 찾아가는 발레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 이후에는 이주여성들이 발레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발레공연은 이주여성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고,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새성전 입당 이후 행사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특히 교회 측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어교실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플룻연주와 함께 교회 섬김위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고 이주여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약 60명의 이주여성들이 참여했으며 이정섭 센터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부인 이지영 여사도 참여했다.

양해규 센터장은 “교회공간을 이주여성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감사드린다. 이주민들을 더 잘 섬기는 센터의 기능을 잘 감당할 것”이

라며 “또한 한국어교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해준 감사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을 설립한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수원시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3천만원의 후원금과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5개월분 추가가입, 보장기간 12월까지...외국인 포함 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송하성 기자

수원시, 영유아 가족 '가족캠핑' 가구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9월 14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서 '가족 캠핑'을 연다. 수원시 영유아 자녀를 둔 38가구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수원시에 거주 중인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5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 수가 많은 가정(1순위),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2순위)이다. 선정 결과는 8월 26일 오전 11시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이번 가족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송하성 기자

'영화·소설로 만나는 다양성 나라'

한림도서관, 2025년 지혜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시 한림도서관이 2025년 지혜학교 '영화와 소설을 통해 만나는 다양성의 나라, 미국'에 참가할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강선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8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강의한다.

영화와 소설을 통해 미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인문 강좌다.

▲미국 문화의 정체성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과 연설, 새로운 흑인의 목소리들 ▲지역주의 접근법 : 서부와 남부 ▲청년 문화 ▲미국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기 등 12개 강의로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문·예술 기반의 시민 배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한림도서관은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수원시도서관통합예약시스템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영화와 소설을 통해 만나는 다양성의 나라, 미국'을 선택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8월 1일, 4~5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

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해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8월 8일까지 '2026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

업은 수원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반복적·관행적 사업은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폐지·통폐합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8월 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소관 사업 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예산 부서 실무 검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1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근대여행 골목길 투어' 참여!

수원의 근대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체험해요



수원시는 수원 신작로(향교로 일원)에 남아 있는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근대여행 골목길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근대여행 골목길 투어'는 수원의 근대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현장 중심형 역사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속 여행 코스 '산루리 모-단길'은 수원화성이 위치한 팔달구의 옛 지명 '산루리'와 근대를 상징하는 단어 '모-단'의 옛 발음 '모-단'의 합성어다.

'산루리 모-단길'은 ▲구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중앙도서관, 수원향교를 거쳐 매산초까지 걷어가는 '1코스' ▲교동 인쇄골목에서 출발해 수원문화원, 부곡원, 팔달사를 지나 남문로데오 공연장에 이르는 '2코스'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산루리 모-단길' 해설 투어를 2025년 12월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회 운영한다.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모바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을 시작했다. 참여자는 각 문화유산 앞에 설치된 안내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9개소 중 7개소 이상 방문 시 행궁사랑채에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한 추리미션 콘텐츠 '수원역'도 운영 중이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5개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각 회당 약 1시간 체험으로 근대역사의 주인공이 돼 미션을 해결하는 몰입형 콘텐츠다. 이용 금액은 개별 회차 8000원, 전체 패키지 구매 시 2만 4000원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 청소년 장학골든벨' 모집

수원시 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50명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장학 혜택도 받을 수 있는 '2025 수원시 청소년 장학골든벨'에 참가할 청소년 150명을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청소년 장학골든벨은 8월 31일 오후 2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 총 150명을 모집한다. 학교밖 청소년 50명을 우선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새빛톡톡에서 할 수 있다.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만 신청해야 하고, 재학증명서나 학교밖 청소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한다.

예선전에서 OX 퀴즈와 객관식 문제로 150명 중 50명을 선발한다. 이후 패자부활전과 본선, 결선을 거쳐 순위를 정한다. 문제는 수원의 역사·문화·시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일부는 예상 문제는 사전 제공한다.

대상 1명(장학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70만 원), 우수상 6명(각 40만 원), 장려상 10명(각 20만 원)을 선발한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청소년들이 장학골든벨에 참가해 수원의 새로운 매력을 알고, 수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포용사회 실현 위한 정책 추진 "놀라워"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이주민 지원 위해 4개 분야 33개 과제 수립



경기도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국장 김원규, 사진)을 신설했어요.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총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제시했어요.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 생활 밀착형 현장지원 본격화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크게 넓히고, 인력을 2배 이상 충원했어요. 또한 다국어 상담도 신규 도입했어요.

지원 언어는 대부분의 이주민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법률·노동·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어요.

경기도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 쉼터 개선과 산업안전 기반 마련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어요.

특히, 지난해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행복일터'를 선정하고, 제조업체당 최대 1천만 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1개 시군과 중앙정부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까지 지원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기도는 외국인 입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어요.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밖에도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어요.

■ 사회통합 위한 생활지원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어요.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해요.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배경 청소년

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을 계속해요.

■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경기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어요.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할 방침이에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경기도의 이주민 친화 정책, 여러분은 놀랍지 않나요? <베트남어 28면, 영어 13면> 송하성 기자

农林畜产食品部将在8月6日之前开展“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传统市场进行返券活动

购买韩国产农产品和畜产品最多可享受40%的折扣。另外在全国传统市场活动期间购买韩国农畜产品,最多可获得2万韩元的onnuri商品券。

实施农畜产品折扣活动

农林畜产食品部表示,从7月17日到8月6日的3周内,为了减轻夏季国内外消费者的物价负担,将实施“夏季休假季节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

在此次项目中,经营韩国农畜产品的1万2000多家线上·线下流通企业将以当季农产品为中心进行打折活动。

特别是参加此次打折活动的企业除了适用政府补贴的折扣外,还必须额外提供企业自身的折扣,从而进一步减轻了消费者的负担。

因此,消费者在此次活动期间购买韩国农畜产品,每人每周可享受2万韩元的优惠,最高可享受4折优惠。线下实体店

支付自动享受折扣,线上则可在结算阶段使用折扣优惠券享受优惠。

传统市场进行返券活动

还为使用传统市场的国内外消费者举办退款活动。传统市场此前只在节日进行现场退款活动,但从8月4日到9日的6天里,将在全国130个市场举行退款活动。

在传统市场购买韩国农畜产品的消费

者可以向退货柜台提交购买收据,并返还相当于购买金额30%的金额,最多可获得2万韩元的onnuri商品券。

农业食品部流通消费政策官洪仁基(音)表示:“假期和休假季节到来之际,预计家庭的伙食费将会增加,因此决定推进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今后在农畜产品集中消费时期或价格上涨时,将推进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减轻消费者的物价负担”。경기의외국인SNS기자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나우어스 공동체와 함께하는 ‘2025 아시아 평화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내·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견학을 넘어 평화와 분단, 통일이라는 깊은 주제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함께 나누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5월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30여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한 ‘피스게임 (Peace Game)’이었다. 참가자들은 조를 이루어 아시아 및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시물레이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5월 26일에는 참가자들이 파주 일대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제3땅굴을 시작으로, 도라전망대와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졌다.

도라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북측의 개성공단과 마을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한강 하구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며 남북의 역사를 알아보고, 평화를 향한 염원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평화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평화라는 공통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귀중한 여정이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참가자 100명에 커피 상품권 ‘가족 있어 행복한 사진·영상 공모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제11회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

수원시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진·영상 공모전’은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uwon.familynet.or.kr/center>) > 프로그램 홍보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작품 1점과 함께 전자우편(suwonphoucc@naver.com)으로 8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상도 2000 픽셀 이상 직접 촬영한 사진 작품 또는 해상도 1920×1080 픽셀 이상 직접 촬영 후 편집·제작한 영상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내용 진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사진 우수 작품 14점, 영상 우수 작품 5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사진 최우수 30만 원, 영상 최우수 60만 원 등 총 3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9월 12일(예정)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공모전 참여자 100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17세 이주민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뚝뚝!한국어’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수업 ‘뚝뚝! 한국어’가 21일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II)을 준비하는 17세 이상 이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8월 14일까지 매일 총 19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중

급 수준(3~6급)을 준비하는 이주민을 위한 집중 한국어 교육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9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시에서 설립하고,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지원 전문기관이다.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들(다문화·외국인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이 언어, 문

화, 학습 격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NHÀ CUỐI NĂM 2025

TUYỂN SINH LỚP SONG NGỮ DÀNH CHO TRẺ ĐA VĂN HÓA

Thời gian tuyển dụng

Ngày 30.07.2025-đến khi hết hạn

Lịch trình

Ngày 17.08~07.12.2025(tổng 16 buổi)
chủ nhật hàng tuần từ 10:00~12:00

Đối tượng

Con em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on em gia đình Hàn Quốc đang học tiểu học

Nội dung

Tiếng Việt, tiếng Anh, tiếng Trung & giáo dục văn hóa

Phương pháp

Đăng ký qua Family Net(đơn đăng ký sẽ điền sau)

Địa điểm

Phòng học tại trung tâm

Liên hệ

070-4047-3112 Cô phụ trách

Sử dụng tiếp sách giáo khoa của kỳ 1

Vui lòng tham khảo khi đăng ký!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하반기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모집기간

2025.07.30- 마감 시

교육 일정

2025.08.17~12.07 (총 16회기)
매주 일요일 10:00~12:00

신청 대상

초등학생 재학 중인 다문화자녀 또는 일반 자녀

교육 내용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및 문화교육

신청 방법

패밀리넷 신청(추후 서면 작성)

교육 장소

센터 내 강의실

문의 사항

070-4047-3112 이중언어코치

상반기 교재 이어서 사용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Second half of 2025

Bilingu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Recruitment period

2025.07.30- until deadline

Schedule

2025.08.17~12.07 (total of 16 sessions)
Every sunday 10:00am~12:00nn

Recipient

Multicultural children or general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Content

Vietnamese, English, Chinese & Cultural Education

How to apply

Family net application (to be written later)

Location

Classroom in the Center

Inquiry

070-4047-3112 Bilingual Coah

Please note that the textbook from the first half of the year will continue to be used. Kindly keep this in mind when applying.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실질적 지원해요!

오산시가족센터,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 운영 큰 성과

오산시
가족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오산시가족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6월부터 7월까지 오산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운전 이론, 교통안전 수칙, 문제 풀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생 12명을 인솔하여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그 결과, 총 12명 중 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며 5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혼자 공부하기에 막막했는데, 수업 덕분에 자신감을 느끼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오색전 ‘인센티브 10% 지급’

오산시는 8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 ‘오색전’의 인센티브 10%지급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추가지급은 지난 7월 시행된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8월 한 달간 오색전을 충전하면 충전금액의 10%가 추가로 적립돼 월 최대 100만원 충전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오산시는 고물가로 인해 체감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색전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소비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해

오산시는 8월1일부터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미취업 청년(1985년생~2006년생, 신청일 기준)이다.

지원금액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에 한해 응시일 당시 미취업 상태였던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기간 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시험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으로 총 1004종이다. 자동차운전면허(1종 특수면허만 해당)도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자기개발 및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아름다운가게 견학 및 기부 활동’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9일, 오색행복브릿지 가족봉사단이 참여하는 ‘아름다운가게 견학 및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 화성동탄점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활동은 총 11가족 36명이 참여해 공익적인 소비와 기부 문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름다운가게의 운영 철학과 매장 운영 방식을 매니저로부터 소개받았다.

특히, 견학을 통해 나눔의 가치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정에서 기부 물품을 가져와 매장에 직접 전달하며 작은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초등학교 자녀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로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소비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가게의 철학을 이해하고 직접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나눔 실천의 행복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나눔은 일상 속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지은 기자

부모자녀 미술집단상담

함께 그리는 우리가족

교육일정
1주차 9/5(금) 17시~19시
9/6(토) 10시~13시
2주차 9/12(금) 17시~19시
9/13(토) 10시~13시
총 4회

교육대상
부모 1명 + 초등 고학년 1명
5쌍 (총 10명)
교육장소
오산자원봉사센터
3층 프로그램실

접수기간 8/4(월) ~ 9/4(목) 까지
접수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2025년 부모자녀 집단상담
문의 031.378.9766(가족지원3팀)

홈페이지 QR코드

오산시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온가족 보물사업 가족상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hatGPT

오산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 챗GPT 업무 활용법

Program Overview

강의 주제 ChatGPT 업무 활용법
- 챗GPT, 생성형 AI 활용 원리부터 제대로 알고 쓰기
- 프롬프트 작성법 기초, 업무 효율을 높이는 활용 스킬
- 다양한 생성형 AI 발전 동향 및 활용 방법

강의 일시 2025. 8. 6. (수) 19:00 ~ 21:00

강의 장소 경기 오산시 운암로 7, 3층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실

참여 대상 오산시 관내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선착순 10명 / 1인가구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 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osan.familynet.or.kr)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2025. 7. 21. (월) 10:00 ~ 8. 4. (월) 17:00

오산시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2025년 진로설계지원사업

진로 및 학업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및 진로, 교우관계 등 생활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에 대한 전문적인 1:1 상담”

일시 상시모집

대상 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자녀, 난민가족자녀

내용 학생상담(기본10회11)
부모상담(기본5회11)

장소 오산시가족센터 1층 상담실

신청방법 전화 신청 (070-4336-0729)

비용 무료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이주민이 한국에서 중고책을 파는 방법, 중고서점 이용 후기

Как продать подержанные книги в Корее? Мой опыт с Aladin

Если у вас дома есть ненужные книги, не спешите их выбрасывать. В Корее 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перепродажи через магазин Aladin. Так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подарить книгам вторую жизнь, но и заработать на этом.

Вот как это работает:

1. Скачайте приложение «알라딘»

Оно доступно в Play Market или App Store. Интерфейс на корейском, но всё понятно интуитивно.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понадобится корейск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Если у вас его нет –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помощи у друга-корейца.

2. Зайдите в раздел «중고 팔기» (продажа б/у)

Там можно отсканировать штрих-код книги или ввести название вручную, что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за неё дадут.

3. Выберите способ сдачи

Мо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тправить книги почтой (почта бесплатная, если сдаешь от 3 книг), либо отнести в ближайший офлайн-магазин Aladin. Если состояние книги не устроит магазин, её отправят вам обратно.

4. При отправке почто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ниги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их проверят –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и. Деньги зачислят на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или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5.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магазина

Возьмите номерок и ожидайте своей очереди. Сотрудник проверит состояние книг (отличное/хороше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и предложит цену. Деньг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личными или на баллами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Баллы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окупку других книг в магазине.

Совет

Лучше всего принимают книг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Книгу не получится сдать, если издание слишком старое, или в магазин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же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же книг. Примут ли книгу и сколько за неё можно получить –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заранее в приложении.

Мой опыт

На днях я сама попробовала сдать четыре книги в магазин Aladin в городе Коян. Книги были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а процесс сдачи занял не более 5 минут. За все книги мне заплатили 5,200 вон. Сумма небольшая, но я рада, что книги получают вторую жизнь и не будут пылиться у меня на полках.

집에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이 쌓여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알라딘(알라딘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책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에 두 번째 생명을 주는 동시에 소소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알라딘 중고책 판매 절차입니다:

1. ‘알라딘’ 앱 다운로드

알라딘 앱은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직관적인 구성이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한국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없다면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중고 팔기’ 메뉴 이용

앱 내 ‘중고 팔기’ 메뉴로 들어가면, 책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제목을 직접 입력하여 책의 예상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책을 보내는 방법 선택

책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택배 발송: 3권 이상일 경우 무료로 발송할 수 있으며, 알라딘에서 상태 확인 후 책을 매입합니다. 단, 책 상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가까운 알라딘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책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4. 택배로 보낼 경우

책이 도착하면 알라딘에서 상태를 확인한 후, 책값을 ‘알라딘 캐시’나 은행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책 상태는 깨끗해야 하며, 낙서나 훼손이 심한 경우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매장 방문 시 절차

매장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합니다. 직원이 책의 상태를 확인한 뒤 (최상/상/중) 매입 여부와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매입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알라딘 캐시’로 받아서 다음 책 구매 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한국어로 된 책, 상태가 좋은 책이 가장 잘 팔립니다. 책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같은 책이 이미 매장에 여러 권 있을 경우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미리 매입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후기

최근 집 근처에 있는 알라딘 매장에서 중고책 4권을 직접 판매해 보았습니다. 책 상태는 좋고, 전체 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 5,200원을 받았고, 책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간도 정리되고, 환경도 생각하는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니다. <인터넷에서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Saldaeva Ekaterina 기자

Дома копятся книги, которые уже не читаешь? Не спеши выбрасывать!

В Корее 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перепродажи через магазин Aladin

1. Скачай приложение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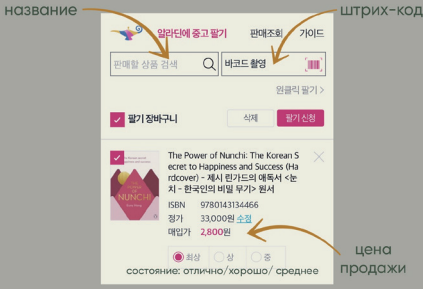
доступно в App Store и Play Market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ужен корейск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2. Зайди в раздел 알라딘에 중고 팔기

отсканируй штрих-код или введи название книги, что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за неё дадут



3. Выбери способ сдачи: почта или магазин

отправка по почте бесплатная, если сдаешь больше 3 книг за ра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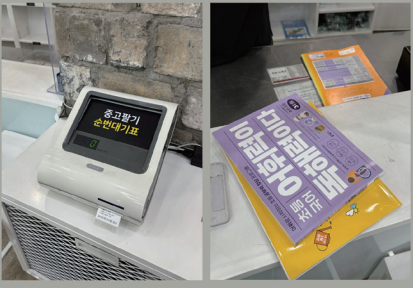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ниги проверят, деньги поступят на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или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либо можно сдать книги в ближайший офлайн-магазин



4. В магазине возьми номерок

когда подойдет очередь, сотрудник проверит состояние книг



книги не примут, если это устаревшее издание, либо этих книг уже много в магазине – проверить можно в приложении



구리시(시장 배경현)는 지난 7월 25일, 삼 남매 유튜브 브 '방가네'의 운영자인 방효선·고은아·미르 씨가 구리시 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를 방문해 미혼모, 취약·위기 가족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방가네' 운영자들인 삼 남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족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구리시 미혼모 가정과 위기 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가네'의 맏언니인 방효선 씨는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큰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둘째인 고은아 씨는 "평소 유기견 관련 봉사과 후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미혼모와 한부모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미르 씨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취약·위기 가족에게 우리의 정성이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이번 후원은 법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미혼모, 취약·위기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원하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방가네'는 친남매인 방효선·고은아·미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삼 남매는 2020년부터 유기견 보호소 봉사, 생리대 기부 등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031-556-3873 이지는 기자

구리시가족센터, 함께하는 사랑밭 다문화 자녀 '빛나는 미술놀이터'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한 미술시간 <알록달록 빛나는 미술놀이터>를 7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했다.

5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구리시가족센터가 운영 중인 '다함께 스텝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0명의 아이들이 미술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갖고 있다.

7월에는 ▲아이스크림콘 만들기 ▲반짝반짝 별나라 ▲빛을 따라서 ▲가족 그리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미술놀이를 진행했다.

구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툴던 아이들의 손끝이 어느새 능숙하게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Hãy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đ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nhé~ 농축산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해 줘요~

Nếu mua các sản phẩm nông sản và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bạn có th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Ngoài ra, tại các chợ truyền thống trên toàn quốc,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khi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bạn có thể được hoàn tiền lên đến 20.000 won dưới dạng phiếu mua hàng Onnuri.

Bắt đầu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giảm giá nông, lâm, thủy sản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ủy sản cho biết sẽ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lâm, thủy sản mùa hè" trong 3 tuần từ ngày 17/7 đến ngày 6/8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chi phí sinh hoạt cho người dân trong và ngoài nước vào mùa hè.

Trong dự án này, hơn 12.000 cửa hàng phân phối trực tuyến và ngoại tuyến chuyên kinh doanh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sẽ tiến hành giảm giá tập trung vào các loại nông sản theo mùa.

Đặc biệt, các cửa hàng tham gia chương trình giảm giá lần này bắt buộc phải thực hiện thêm chương trình giảm giá riêng của cửa hàng ngoài mức giảm giá của chính phủ, giúp giảm gánh nặng cho người tiêu dùng. Theo đó, trong thời gian diễn ra chương trình, người tiêu dùng khi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Hàn Quốc có th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với mức tối đa 20.000 won mỗi người mỗi tuần.

Tại cửa hàng ngoại tuyến, khi thanh toán sẽ được tự động áp dụng giảm giá, còn trên trực tuyến,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ưu đãi bằng cách áp dụng phiếu giảm giá hỗ trợ giảm giá ở bước thanh toán.

Cũng tổ chức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tại chợ truyền thống Chương trình cũng được tổ chức dành cho người trong và ngoài nước sử dụng chợ truyền thống. Trước đây, chợ truyền thống chỉ tổ chức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tại chỗ vào dịp lễ, nhưng từ ngày 4 đến ngày 9 tháng 8,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6 ngày tại 130 chợ trên toàn quốc.

Người tiêu dùng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tại các chợ truyền thống sẽ nộp hóa đơn mua hàng tại quầy hoàn tiền và được hoàn trả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30% giá trị mua, tối đa lên đến 20.000 won dưới dạng phiếu mua hàng Onnuri.

Ông Hong In-ki, Cục trưởng Cục Chính sách Phân phối và Tiêu dùng thuộc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ủy sản Hàn Quốc cho biết: "Dự kiến chi phí thực phẩm của các hộ gia đình sẽ tăng trong kỳ nghỉ hè và kỳ nghỉ học sinh, vì vậy chúng tôi đã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Ông cũng nói thêm: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vào những thời điểm tiêu dùng cao hoặc khi giá cả tăng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vật giá cho người tiêu dùng."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7월 1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온(All) 가족 행복 In! 한(One)마음 가족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형서 남양주시청 기획조정실장, 함도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내외빈과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가족 400여명이 참석해 큰 인기를 끌었다.

구형서 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남양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많이 응원해 달라”며 “오늘 행사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도훈 단장은 “남양주시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며 “모든 가족들이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회에 참여하며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양주시가족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체험 부스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대별 인구정책의 흐름과 인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인구 100만 남양주시의 염원을 담은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폭염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의미있었다”며 “막연히 알고 있던 인구

문제에 대해 가족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운동회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인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위해 7월 31일까지 ‘한 줄로 바꾸는 남양주 인구 미래’를 주제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접수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청 031-590-2114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90-8214~5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031-563-5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남양주지부 1644-7077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031-558-1366 남양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 031-560-1919 범죄신고 112 남양주경찰서 18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Immigrants are also Gyeonggi-do residents’ Policy promotion to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Amazing” 경기도 이민사회국 포용사회 실현 정책 추진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immigrant population and create an inclusive society where all residents can live without discrimination,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in July 2024, the first of its kind amo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fterwards, it established the ‘Gyeonggi Province Comprehensiv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Plan (2025-2027)’ and presented 33 tasks in four areas: ▲social integr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immigration policy ▲governance. Let’s take a look at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Gyeonggi Province’s immigration policy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launch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Full-scale on-site support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begins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in Uijeongbu City in July of this year.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is an organization that expanded and reorganized the functions of the ‘Gyeonggi Foreigner Human Rights Support Center’, and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size of the office and more than doubled the number of personnel. In addition, multilingual counseling has been newly introduced. It provides customized services such as legal, labor, and living information in 10 languages that most immigrants use. Last year, more than 10,000 people received education and living grievance counseling support.

Gyeonggi Province plans to build an ‘immigrant portal’ that provides residence and living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and even has

community functions for each country by 2026 to help all immigrants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and increase digital-based information accessibility.

■Improving shelters and establishing industrial safety foundations

Gyeonggi Province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for migrant workers and is supporting the remodeling of 15 aging shelte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fire incident last year in which many foreign workers died, we plan to select 15 ‘happy workplaces’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and provide up to 10 million won per manufacturing company for improvement of workplac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We also formed a task force to resolve poor living environments such as vinyl greenhouse accommodations, and are conducting joint on-site inspections twice a year in cooperation with 31 cities and coun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We are currentl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specializing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upport for children with undocumented immigrant backgrounds

In the past, foreign children were not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and were not registered as residents, so local governments could not provide guidance on school enrollment, which resulted in many cases of foreign parents missing the timing for their children to enter elementary school.

Gyeonggi Province is the first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send admission notices to 2,037 immigrant children in February of this year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elementary school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

children who are confused due to not being able to know the status of their enrollment and the problem of foreign children being neglected without receiving admission notices.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unregistered foreign children, we propos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temporary residence period for ▲children born in Korea or entering the country as infants (under 6 years old) ▲children staying in Korea for 6 years or more ▲children attending or graduating from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and this was accepted.

In addition, we are taking the lead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rough the ‘public verification system’ that supports the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for children of unregistered immigrant backgrounds who have difficulty registering their birth.

■Expanding living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Gyeonggi Province has expanded the 10% discount on international express mail (EMS) fees, which was limi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o foreign residents through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Gyeongin Regional Post Office. The additional support targets are ▲foreign students (D-2, D-4) ▲foreign workers (E-8, E-9, H-2) ▲foreign nationals (F-1, F-2, F-3, F-4, F-5) ▲job seekers (D-10)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accounting for 85% of all foreign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In August, they plan to operate a specialized counseling center for female migrant victims of violence, and in September, we plan to hold an immigrant community integration festival with immigrants, indigenous people, and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in an effort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community awareness.

■Strengthening the Attraction of Future Tal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Gyeonggi Province designed the ‘Gyeonggi-do E-7 (Special Activities) Regional Visa’ to meet the demand for manpower in industrial sites and attract excellent foreign talent. The Gyeonggi-do Regional Visa targets the Special Activities (E-7) visa field, such as advanced ICT and nursing, and has secured a regional visa quota for a total of 630 people, which is 52% of the national E-7 series quota (1,210 people).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and the ‘Gyeonggi Province Foreign Student Support Ordinance’ were enacted in June, and the ‘Gyeonggi Province Foreign Student Support Center’ was established to support excellent talents to settle and work stably in Gyeonggi Province.

Kim Won-gyu, the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said, “Since the launch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we have been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create a society where residents and immigrants can grow together,”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pursue immigration policies that lead the n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immigrants are also Gyeonggi residents,’ and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where everyone is respected and can live together.”

Aren’t you surprised that Gyeonggi Province’s immigrant-friendly policies are ahead of any other local government in Korea?

〈한글 기사 6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상담 업무 안내

언어	따갈로그어(영어), 우즈베크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라오스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요일	일요일~목요일 (금, 토요일 제외)	일요일~수요일 (목, 금, 토요일 제외)
시간	09시30분~17시30분	월요일~수요일 : 13시30분~17시30분 일요일 : 09시30분~17시30분



 전화상담 1661-0222 (언어별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경기도 의정부 추동로 140, 2층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상담 업무 안내 (수원)

언어	한국어, 중국어
요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시간	13시30분 ~ 17시30분



 전화상담 1661-0222 (언어별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사 2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



태국어

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ให้กับเด็กอพยพ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



ระยะเวลาโครงการ

กุมภาพันธ์ - ธันวาคม ปี 2568
(สามารถยุติสัญญาก่อนกำหนดได้เมื่อเห็นสมควร)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ารสนับสนุน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เจ็บป่วยร้ายแรง (สูงสุด 5 ชั่วโมง)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ำนวนเงินเล็กน้อย (สูงสุด 1 ชั่วโมง)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ตั้งท้องและการคลอดลูก (สูงสุด 3 ชั่วโมง)
- การฉีดวัคซีนที่จำเป็น (สูงสุด 3 แอสวอน)

เอกสารที่ต้องส่ง

เอกสารขออนุญาตเข้าเมือง
เอกสารผู้พามา
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
(www.seoulmigrant.net)

คุณสมบัติ

เด็กอพยพ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ที่ยังไม่ได้เข้าเรียน
มีอายุต่ำกว่า 0 ถึง 6 ปี (ทั่วประเทศ)

วิธีการสมัคร

หลังจากคัดเลือกผู้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ตรวจสอบทุกต้นเดือนแล้ว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ะถูกโอนไป
ยั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
*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ผู้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ดือนละครั้ง
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ก็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

องค์กรเจ้าภาพ

โรมันคาทอลิก 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แห่งกรุงโซล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ภิบาลผู้อพยพ
☎ 02-953-0468





필리핀어

Programang Suporta Para sa Medikal na Gastosin ng Mga Batang Migrante na Hindi Dokumentado



Panahon ng Programa

Pebrero ~ Disyembre 2025
(Maaaring matapos nang maaga kapag naubos na ang pondo)

Saklaw ng Suporta

- Medikal na gastos sa emergency at malubhang kalagayan(hanggang 5,000,000 won)
- Pang-maliitang medikal na gastos(hanggang 1,000,000 won)
- Medikal na gastos na may kinalaman sa pagbubuntis at panganganak(hanggang 3,000,000 won)
- Kinakailangang bakuna (hanggang 300,000 won)

Kailangang Dokumento

Sumangguni sa website ng
Catholic Archdiocese ng Migrant
Pastoral Committee ng Seoul
(www.seoulmigrant.net)

Mga Benepisaryo

Mga batang migrante na hindi dokumentado na hindi pa pumapasok sa paaralan, edad 0 ~ 6 taon (buong bansa)

Paraan ng Pag-apply

Sa simula ng bawat buwan, ang Review Committee ay pipili ng mga benepisaryo, at ang pondo para sa medikal na gastusin ay ipapadala sa ospital kung saan nagpapagamot
*Ang pagsusuri at pag-apruba ng mga kwalipikadong benepisyo ay isinasagawa isang beses sa isang buwan, ngunit para sa mga emergency na mga kaso, ito ay isinasagawa anumang oras.

Host na Organisasyon

Catholic Archdiocese of Seoul's Migrant
Pastoral Committee
☎ 02-953-0468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A1·A2블록 본 청약 돌입

주광덕 시장,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 참석...첫 공공분양 본격화



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5일 별내동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청약 관심을 환기해 성공적인 분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LH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관한 주택전시관은 왕숙지구 A1블록(629세대)과 A2블록(401세대) 등 총 1,03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 중심의 높은 청약 수요가 기대된다.

전시관 내부에는 △59A(A1블록) △55A(A2블록) 타입의 실물형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이 실제 주거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개관식 이후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과 첨단산업 기능이 집약된 수도권 동북부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첫 공공분양은 남양주가 향후 주거와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과 정주 여건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LH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왕숙신도시를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왕숙신도시는 약 7만 5,000세대 규모

로 조성될 예정이며, 남양주시는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본청약,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1·A2블록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며, 입주 시기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 분양주택을 1만6000가구가량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 2000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남양주왕숙 지구 외에도 뉴홈 선택형의 1호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유형은 임대주택으로 6년 동안 먼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달 화성동탄2 지구(C14블록)에서 처음으로 610가구가 공급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라고도 불린다.

8월에는 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C2블록) 물량 686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주암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와 양재천하늘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 청약 열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달 의정부우정 지구(A1블록)에도 공공분양주택이 538가구 공급된다. 9월에는 남양주진접2 지구(A7블록)에서 405가구가 추가로 풀린다.

송하성 기자

세계로 나아가는 청소년 국제교류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2025 청소년 국제교류단(중국 창저우)' 출국 환송회를 열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환송회는 시를 대표해 자매도시인 중국 창저우시로 떠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뜻깊은 교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출국 전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환송회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시관계자, 학부모, 청소년 국제교류단 30명 등이 참석했으며 격려 인사와 단체 사진 촬영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타국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세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중국 창저우시에서 창조시에서 다양한 기관을 탐방하고 청소년들과 교류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 공영 주차장 6곳 추가

남양주시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과 역세권,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도심 주차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와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80면 규모의 진접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진접역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올해는 47면 규모의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2028년까지 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94면(2026년 준공 예정)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174면(2026년) △다산역 환승주차장 308면(2027년) △평내동 물놀이장 공영주차장 68면(2027년) 등이다. 송하성 기자

상상누리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기반 '돌봄 모델'

상상으로 자라는 아이들!...상상누리터 6호점 '화도다움센터' 개소



남양주시는 22일 화도읍에 위치한 상상누리터 '화도다움센터'의 개소식 개최했다.

상상누리터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로, 오남푸른숲센터와 다산별빛센터에 이어 여섯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센터 관계자,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센터 소개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시장 축하 △기념촬영 및 차담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소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돌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상상누리터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국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남양주시만의 돌봄 모델"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상상누리터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능공유 플랫폼인 휴먼북 라이브러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화도다움센터를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삼아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이끄는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 도울 전문교육 진행 광주시가족센터, 취업역량 향상 및 안정적 정착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7월 광주시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역량 향상과 안정적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특히 한국 정착 중장기 단계 및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2급, 1급)’과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됐으며, 참여자 1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에는 12명의 결혼이

민자가 참여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강사 활동을 통해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참여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수희 센터장은 “장기간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전문성과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 국내 대표 관악축제 ‘곤지암국제음악제’ 열린다

국내 대표 클래식 축제인 ‘곤지암국제음악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며 오는 8월 2일 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총 5회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사)곤지암뮤직페스티벌과 코리아헤럴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문화재단, 주한독일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악 전문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세계 최정상급의 관악 연주자들과 국내외 유망 신진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음악 축제의 장이다. 특히, ‘곤지암국제음악제’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목관 수석 연주자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교육을 병행하는 보기 드문 클래식 행사로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예술성 모두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올해 역시 큰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은 ‘카라얀 아카데미 목관악기 예선 오디션’의 한국 개최다. 작년에 이어 베를린 이외 지역에서 이 오디션이 열리는 것은 세계 최초로 이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위상 상승과 함께 곤지암국제음악제가 지닌 국제적 신뢰를 잘 보여준다. 주요 공연 일정은 ▲8월 6일 연합공연: Winds of Asia ▲8월 8일 폐막 공연: Voyage of Peace 등이다.

김영의 기자

여름방학, 광주시가족센터 함께!!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부모자녀 독서코칭

참여자모집

책과 함께 생각이 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미래가 자랍니다.
우리 아이 글쓰기 고민되시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대 상

다문화가족 초등 3, 4, 5, 6학년 자녀와 그 부모 회기당 15명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 신청 가능)

신청기간

7월 21일(월) ~ 8월 17일(일)

장 소

센터 2층 교육장(대면)
주소: 광주시 통일로 52번길 19(구, 송정동 115-4)

내 용

8월 23일(토) 10:00~12:00 자녀대상 / 13:00~15:00 부모대상
 8월 30일(토) 10:00~12:00 자녀대상
 9월 06일(토) 10:00~12:00 자녀대상
 ★한 가정에서 부모 1회기 + 자녀 3회기, 총 4회기 모두 참석 우선 선정!!
 ★최소 3회기 이상 참석(부모 1회기 필수 참여)

접수방법

[센터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홍보신청]
 -[부모독서코칭]/[자녀독서코칭]
 ★중요 : 부모, 자녀 각각 신청해주세요!!
 부모는 부모 이름으로!! 자녀는 자녀이름으로!!

문의 : 070-4706-3618

기초학습지원 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장지원 ‘꿈트리 음악교실’

광주시가족센터는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으로 ‘꿈트리 음악교실’을 오는 8월 20일까지 총 5회기 운영한다. ‘꿈트리 음악교실’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중 1~3학년 대상이며, 모두가 어울림 1층에서 진행된다.

또래 친구와 함께하는 악기연주 활동으로 동화 〈넌 특별한 사람〉, 〈무지개물고기〉를 각색해 악기연주 활동을 하게 된다. 핸드벨과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활동 마무리로 나만의 도어벨 만들기를 진행한다. 글리스아트&라탄공예로 나만의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070-4706-3626

#‘꿈트리 캠프’ 참여자 모집

광주시가족센터는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으로 ‘꿈트리 캠프’를 진행한다. 여름방학 기간 미술프로그램과 리더십 캠프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초등

학생 중 4~6학년 대상이다. 미술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7월 31일과 8월 14일, 8월 1일과 8월 14일 두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리더십캠프는 8월 7일과 8일 안성너리굴문화마을에서 진행된다. 미술프로그램 2회기와 1박2일 활동 모두 참여해야 한다. 070-4706-3626

#“부모자녀 독서코칭 신청”

광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모자녀 독서코칭’ 참여자를 오는 8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책과 함께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초등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 자녀는 4~6학년 대상이다. 회기당 15명 이상이며, 광주시가족센터 2층 교육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8월 23일과 30일, 9월 6일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모 대상 교육은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문의 070-4706-3618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의 주소 변경 절차 안내: 이사 후 꼭 해야 할 절차

Как иностранцу сменить адрес в Корее: простая инструкция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Если вы живете в Корее по визе и переехали на новое место, вам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официально изменить адрес. Нарушение этого требования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правонаруше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штрафу.

Почему важно сообщать о смене адрес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иммиграционн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ностранец обязан уведомить об изменении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ереезда.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типов виз – F6, E2, D2, H1 и т.д. Если не уведомить – штраф до 1 млн. вон и возможные проблемы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или подаче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Где и как менять адрес?

Способ 1. В район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Смена адреса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день обращения. Это бесплатно и занимает 10-15 минут.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 1) айди карту(외국인등록증) 2) паспорт 3) копию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전세계약서 или 월세계약서) 4) заявление №34통합신청서

Если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оформлен не на вас, а на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айди карта, права) и подписанное им согласи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ам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се формы можно скачать и распечатать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перейдя во вкладку뉴스 공지 → 민원서비스 или заполнить сразу на месте. После смены адреса в системе, сотрудник наклеит на вашу айди карту стикер с новым адресом, иногда дают распечатку нового адреса (주소이전 확인서).

Способ 2.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출입국관리사무소)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о смене адреса через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Записываться на прием следует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по новому месту своего проживания.

Способ 3. 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HiKorea

Этот способ подойдет не всем, так как у него есть ограничения.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 1) Компьютер, желательно с Windows (через телефон не получится)
- 2) Цифровой сертификат공동인증서: выдается через банки, Kakao Bank, Toss, Nonghyup и др.
- 3) Учетная запись на сайте HiKorea

На сайте необходимо войти в свой аккаунт по сертификату 공동인증서, перейти в раздел E-Application (전자민원) -> Report of Change in Residence (외국인 주소변경 신고). Заполните форму, указав старый адрес, новый адрес на корейском, дату переезда. Прикрепите скан или фото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Отправьте и дождитесь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осле отправки заявка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в течение 3-7 рабочих дней. Если по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ам придет уведомление. Вы можете отслеж

ивать статус в разделе My page -> Application Status.

Полезные фразы на корейском
-주소 변경하러 왔어요.[чусо пёнгён харо васоё] Я пришел сменить адрес.

-새로운 주소는 여기예요.[сероун чу сонын ёгиеё] Вот мой новый адрес.

-계약서 가져왔어요. [кеяксо каджёв асоё] Я принёс договор аренды.

Смена адреса в Корее – это неслужная, но обязате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Чем раньше вы ее пройдете, тем спокойнее будет ваша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история. Не бойтесь: сотрудник и в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обычно готовы помочь,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Главное – не затягивайте с подачей и берите с собой нужные документы.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주소를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소 변경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F-6, E-2, D-2, H-1 등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연장 또는 국적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주소 변경 방법은?

방법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당일 바로 변경이 완료되며, 비용은 무료이고 소요 시간은 약 10~15분이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1.외국인등록증 2.여권 3.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4.통합신청서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계약자(집주인 또는 실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서명 포함)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의 직접 방문은 필수가 아니다.

모든 서식은 HiKore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주소 변경이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 스티커를 붙여주며, 가끔 주소이전 확인서도 함께 제공된다.

방법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주소 변경이 가능하지만, 방문 전 반드시 HiKorea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때 예약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해야 한다.

방법 3. HiKorea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다음이 필요하다:

- 1.Windows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 (모바일 불가) 2.공동인증서(카카오뱅크, 토스, 농협 등에서 발급 가능) 3.HiKorea 계정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민원(E-Application) → 외국인 주소변경 신고(Report of Change in Residence)로 이동해 양식을 작성한다. 이전 주소, 새 주소(한글로), 이사 날짜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 시 별도 안내가 온다. 처리 상태는 마이페이지(My Page) → 신청 현황(Application Stat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한 표현들

-주소 변경하러 왔어요.[чусо пёнгён харо васоё] Я пришел сменить адрес.

-새로운 주소는 여기예요.[сероун чу сонын ёгиеё] Вот мой новый адрес.

-계약서 가져왔어요. [кеяксо каджёв асоё] Я принёс договор аренды.

한국에서의 주소 변경 신고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향후 체류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주민센터 직원들은 외국인을 친절하게 도와주므로, 한국어가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 가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다.

Saldaeva Ekaterina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광주시,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저출산 극복·가족친화 문화 확산 앞장

광주시는 지난 13일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광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광주시 인구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구정책 유공 표창은 시민 추천

공모를 통해 다둥이 자녀를 둔 시민 3명과 돌봄휴가제·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실천한 기업 2곳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4대 분야 53개 세부 사업에 총 331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

춤형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아이바른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영유아 4천305명이 총 1만1천516건의 발달검사를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공보육시설 확대, 광주시 중앙어린이센터 및 쌍령공원 꿈자람센터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방세환 시장은 "인구정책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구 주간을 운영하며 부모-자녀 체험형 행사 등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앞으로 전문기관만 사업 참여 가능!...2가지 법안 국회 통과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어요. 국회는 지난 7월 23일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로써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개선 2가지 법안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어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유는?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기반 없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제도적 허점이 많았어요. 특히 브로커가 개입

해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았어요.

개정안의 내용은 뭐야?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질병·사망 등 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

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예요. 모두 현장에서 제기된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예요.

뭐가 달라진 거야?

앞으로는 법무부가 선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계절근로 사업에 끼어들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거나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업체가 계절근로 사업에 개입하면 법적인 처벌 받게 돼요.

그래도 아쉬운 점!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국인 농가를 위한 것이예요.

현재 계절근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이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래요.

〈중국어 33면, 몽골어 30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광주시청 031-760-2000 광주시가족센터 031-798-7141 세상의빛이주민센터 031-767-8118 광주고용센터 031-799-2760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내외국인 함께한 즐거운 요리체험

양평군가족센터, 문화소통프로그램 세계요리체험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내외국인 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세계요리체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세계요리체험 첫 회기에서는 캄보디아 전통 요리 '넴미수어'를 체험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중국(마라탕, 토마토 달걀 볶음), 베트남(분쫄, 반썰오), 일본(오사카식 오코노미야끼) 등 다양한 국가의 요리를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식문화를 배우고 문화적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문화다양성 활동가로 활동 중인 결혼이

민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요리 팁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8월과 9월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과 체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두 나라 문화를 통합한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내외국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양평군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사회통합의 중심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양한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양평 학부모에 교육과정 및 진학정보 제공

양평군가족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행복플러스센터에서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업으로 마련됐으며, 중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와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자유학기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방식, 고등학교 입학 절차 등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

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위해 동시 통·번역 서비스와 다국어 교육 안내 자료가 제공된다. 이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의 중학교 교육과 진학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해요

'양평청년공간 여름 특강'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역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양평청년공간 여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년 수요에 맞춘 실용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양평청년공간 으뜸(용문면 용문로 391)과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양평읍 양근로 196) 두 곳에서 8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청년공간 으뜸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테크 교육과 생활 기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재테크 특강인 "20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다."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는 총 4회로 구성되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1회차 '부자 목표 세우기, 나만의 가계부 작성법' ▲2회차 '통장 쪼개기, 정부 정책금융상품 활용법' ▲3회차 '국내·해외 주식투자 기초, 투자 공부법' ▲4회차 '환테크, 금테크 등 이색 재테크 소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기술 프로그램은 정리수납부터 인테리어 필름을 활용한 가구 리폼, 싱크 경첩 및 서랍 레일 보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청년들의 자립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에서는 단기 토익 특강인 "한 달에 토익 700점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단기간 점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양평군, 8월 한 달간 운영

'양춘이랑 여름방학' 투어

양평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과 여행, 이벤트를 결합한 콘텐츠를 마련해 가족단위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 군 대표 관광캐릭터 '양춘이'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군 전역에서 8월 한 달간 보드게임형 스탬프 투어인 '양춘이랑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군 관광안내소 등에서 리플릿을 수령한 후 양평 곳곳의 체험 여행지, 관광지, 농촌 체험마을을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품은 양춘이 파우치, 3단 우산, 휴대용 캐리어로, 체험 횟수가 많을수록 보상이 커지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한해 지급된다. 투어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체험업체 18곳, 관광지 8곳, 농촌체험마을 4곳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 가운데 일부 체험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8월9일 양평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양춘이랑 여름방학 체험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교류·소통·협력' 강화로 가족지원사업 전문성 높여요

하남시가족센터, 31개 시군 중간관리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해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중간관리자 45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간관리자 간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족서비스기능강화사업의 핵심 과제인 '종사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함께 가족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참여자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식사 교류 시간과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참여자 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경기도 내 가족센터 간 의미 있는 교류가 인상 깊었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가족사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경기도가족센터협회 박명호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관리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

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네트워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서로의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 문병용 센터장은 "가족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를 이끄는 중간관리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센터 간 소통과 협력은 가족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센터 간 협력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기능강화팀(031-793-2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절기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6,87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17일 기준 하남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이며, 총 3억 4,350만 원의 예산은 전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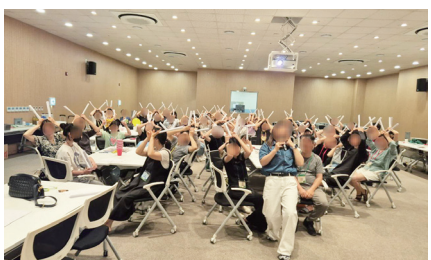
지급은 각 가구의 복지급여 계좌로 현금을 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 자동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는 등 계좌 확인이 어려운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냉방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을 통해 하남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협력의 시간 가져요"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 모두가족봉사단은 지난 7월 19일 단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단원 간 친밀감과 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 오프닝 공연으로는, 이샘크루 소속의 댄서 '팝핀한결'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봉사단원들과 함께 간단한 팝핀 동작을 활용한 챌린지를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어린 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도전이 눈에 띄어,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후 본격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이어졌다. 강의는 행복노리터 대표이자 가족 대상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인 이 모 강사가 맡았으며, 하남시가족센터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랜덤으로 편성된 조를 중심으로 종이컵 쌓기, 신문지 길게 만들기, 안마 게임 등 다양한 팀 활동을 진행하며 유쾌한 소통과 협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은 물론, 신규 단원과 기존 단원 간의 교류와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신규 참여자 앤00

씨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교육 활동 중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은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 나눔과 참여 문화를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가족센터 사업2팀(031-793-2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아동, 함께 성장하는 기쁨 나눕니다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공유학교 ‘다~가치 아카데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3월 24일 2025년 다문화공유학교 ‘다~가치 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및 생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11명의 다문화 이동을 대상으로 한 ‘다~가치 아카데미’는 다문화 아동의 자기 표현력 향상과 사회적 소통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으며,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아동들은 생소한 악기를 직접 다루고, 관리하며 스스로 연주를 익히는 과정에서 협력과 조화를 경험하고 있다.

혼자 내는 소리를 넘어 친구들과 어울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에게 소통, 공감,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기초 학습 능력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한국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수업에 몰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내 소속감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다문화공유학교는 ‘다 같이 가지 있게 성장하는 학교’라는 이름처럼,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가정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1-793-2993

김영의 기자



하남시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7월 19일 하남시 보건소 1층에서 하남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했

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외국인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사전예약을 받아 보건소(하남시 대청로 10) 1층 진료실에서 진행됐다. 검진 항목에는 ▲혈압과 혈당 측정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검사 ▲간염(A,B,C형) 검사 ▲신장, 통풍, 고지혈증 관련 검사 ▲흉부 X선 촬영(결핵 검사) ▲소변 검사 ▲매독 검사 ▲건강 상담 등 모두 30여 종의 항목이 진행됐다.

검진 결과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추가 상담과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약 법정 감염병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도 연계해 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보건소 진료실(☎031-790-65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생생직업체험으로 자녀진로 해결

하남시나룰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30분까지 간호사(5일), 심리상담가(6일), 성우(7일), 가상·증강현실 전문가(8일)를 체험한다. 초등 1~3학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공예전문가(5일), 응급구조사(6일), 직업군인(7일), 항공승무원(8일)을 경험할 수 있다.

개별 체험 수업은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초등 4~6학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제과제빵사(9일), 반려동물전문가(12일), 유튜브 크리에이터(13일), 네일아티스트(14일) 체험을 할 수 있다. 초등 1~3학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쇼콜라티에(9일), 희귀동물전문가(12일), 마술사(13일), 플로리스트(14일) 체험으로 구성된다.

모든 수업은 정원 20명으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나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나룰도서관(031-790-6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남시나룰도서관을 비롯한 하남시도서관은 8월 4일부터 북스타트 하반기 꾸러미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031-5182-1159

김영의 기자

승실사이버대학교

승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

협약기관 외국인 회원 1학기 등록금 72만원 (50% 장학 적용 시)

TOPIK 4급, 학사학위 취득 시 → K-POINT E74 140점 취득 가능

력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입학지원 go.kcu.ac

실전형 커리큘럼 승실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추가모집 25년 7월 19일(토) ~ 25년 8월 14일(목)



문화 체험과 놀이로 더 가까워져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가족나들이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26일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일환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속박물관 및 롯데월드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총 14가족 37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민속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고, 복주머니 모양의 커피박 도어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손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자유 점심시간에는 가족 단위로 오붓한 식사를 나누

며 여유를 즐겼고, 오후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체험을 통해 다양한 놀이기구를 함께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나누며 가족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한 참여자는 “평소에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하루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런 기회를 통해 자녀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대화하고 공감하며...아빠의 성장’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4일과 16일 평택시 관내 아버지 11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버지의 실험실’ 자조모임 중기 집단상담을 했다. 이번 상담은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은 1~4회기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가족의 변화와 개인의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 회기 과제였던 ‘가족 구성원 애니어그램 성향 분석’을 영화 속 캐릭터에 빗대어 해석하며 서로의 차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넘어 ‘한 개인으로서의 나’를 돌아보며 살아온 삶을 되짚고, 감사한 순간들을 나누는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행복한 아버지의 실험실’은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넘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삶 전반을 되짚어보는 연속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8월에는 세 번째 회기로 ‘웬싱 클래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어우러진 문화소통의 장’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6일과 23일 지역 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주민 총 39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해 문화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30~50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해 휴대폰 케이스 만들기과 요리교실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6일 진행된 ‘레진 휴대폰 케이스 만들기’에서

는 참여자들이 각자 휴대폰 케이스에 다양한 파츠를 활용해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하며, 평소 쌓였던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손을 움직이는 세심한 작업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만족감을 얻는 시간이 됐다. 7월 23일에는 평택시로 결부드재단 실습장에서 ‘클럽 샌드위치와 자몽청 만들기’ 요리교실이 진행됐다. 031-660-7472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양서류 파충류 체험하는 가족놀이터 참여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26일 오산에 있는 은산아울림생태박물관에서 7월 2차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서류·파충류 해설 및 체험’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2인 가족 15가족과 3인 가족 10가족 총 25가족 6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박물관 대표인 고희철 씨와 소속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해설로 참가자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체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평소 파충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관심이 적었던 아이들도 양서류·파충류에 대한 생태적 특징과 습성, 보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친근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8월 가족놀이터는 ‘부모와 함께 만드는 칠보공예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는 성장’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중간평가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9일 AK플라자 평택점에서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간평가회와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와 보호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멘토링 활동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하반기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멘토링 경험을 나누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공유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과 개선 요청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중간평가회를 마친 후에는 영화 ‘쥘라기월드’ 관람을 통해 멘토와 멘티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쌓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의 기자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직업체험 "정원사"

7월 21일부터 8월 8일

직업체험 "정원사"

* 참여대상

1그룹: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2그룹: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1~3학년

* 일 시: 8월 9일(토)

1그룹 10:00~11:30

2그룹 12:00~13:30

*내 용: 열대 기후에 적응한 식물들을 활용한 정원 만들기

*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장 소: 평택시가족센터 1층(서정로295)

신청 QR

1그룹

2그룹

문의: 가족교육팀 031-615-3901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참여자 우선 선발

직업체험 "유튜버" 함께 신청시 최우선 선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2일과 26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부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팀플레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장 시기별로 달라지는 부부의 역할과 갈등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와 성인기 자녀를 둔 부부 총 19쌍(38명)이 참여했다.

1차 교육(7월 12일)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감정코칭’을 주제로, 참여 부부는 각자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부부간 성향 차이와 그에 따른 소통 방법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

회기는 ‘우리 집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를 주제로 감성 중심의 공예 체험이 진행됐다.

2차 교육(7월 26일)은 성인기 자녀를 둔 부부 9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I 도구를 활용한 성향 이해와 관계 재정립, 자녀와의 긍정적 소통법’을 주제로, 성인 자녀의 독립, 진로, 취업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며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전통예술인 민화 부채 그리기 체험이 진행됐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특성과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부부교육과 가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놀이로 언어 문화 배우고 자긍심도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과 연계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중국어 2개 반, 베트남어 2개 반, 일본어 1개 반 등 총 5개 반이 모여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어반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물만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중국의 대표 음식 문화를 경험했다. 베트남어반에서는 흥미진진한 ‘마트 게임’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표현을 익혔다. 일본어반 아이들은 일본 전통놀이를 직접 해보며 일본 문화의 재미와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이중언어 교육은 7월 대면 수업 후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잠시 휴강했으며, 8월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025년 이중언어교육지원 사업은 반별 7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김영의 기자

두드림 DO DREAM

진로설계지원사업

신청 QR

1그룹**2그룹**

직업체험 "유튜버" 모집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영상에 담아보세요!

신청안내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참여자 우선 선발
직업체험 "정원사" 신청시 최우선 선발

- 참여대상

1그룹 :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1~3학년

2그룹 :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 일 시 : 8월 9일(토)

1그룹 10:00~11:30(10명)

2그룹 12:00~13:30(10명)

- 모집기간 : 7월21일 ~ 8월 8일

-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비 용 : ★무료!!!

- 장 소 : 평택시가족센터 1층(서정로295)

- 문 의 : 가족교육팀 031-615-3901

직업체험 "유튜버"

평택시가족센터

· 행복한 팀플레이 ·

대 상	아동·청소년자녀를 둔 부부 20명(10커플) ※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청해주세요!	 연간운영계획
일 시	2025.08.09.(토) 10:00~15:00	 신청 바로가기
장 소	평택시가족센터 107호 강의실 (경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복지타운 1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1회기 ♥

【부부 교육】 10:00~12:00
부부의 양육스타일 점검 및
부부 성향 차이 조절 & 대화 전략 배우기
With, 최주미강사(문학치료박사)

♥ 2회기 ♥

【부부 체험활동】 13:00~15:00
우리 집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원예를레스제형 : 테라리움&가드닝)
With, 강영원강사(조경도출연)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06

★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 여러 가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을 미리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녀동반이 어려우며**, 당일 자녀를 동반하실 경우 프로그램상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만, 자녀 연령이 대상과 맞지 않거나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경우 대기전환** 될 수 있습니다.
- ♥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2회기 모두 참석 가능한** 분들만 신청바랍니다.
- ♥ 확정 및 대기 안내는 발발신 문자로 안내되며, **발발신 매체지 차단 또는 본 센터 전화번호 스캔등록** 시 안내 메시지가 수신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해당 설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선에술로 하나 되는 다문화가족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동아리 ‘에어팝’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일과 15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 5,6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에어팝’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동아리 활동이다.

5회기에서는 메탈 요술풍선과 유색 풍선을 활용해 ‘미니 케이크 모자’와 ‘리본 가랜드’를 만드는 활동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데이지 꽃 만들기 기법을 응용해 케이크 형태를 표현하고, 풍선을 꼬아 구슬과 촛불 장식을

더하는 등 다양한 풍선아트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6회기부터는 새로운 동아리원이 참여해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했다. 이날 ‘튤립다발 만들기’를 주제로 이전 회기에서 익힌 꽃다발 제작 기법을 복습하고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튤립의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해 보며, 구슬 장식 기법을 포장에 접목하는 활동 등이 이뤄졌다.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은 여름방학 동안 4주간 휴식기를 가진 후, 오는 8월 12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웹툰작가 체험하고 미래 그려요’ 평택시가족센터, 두드림 진로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2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웹툰작가’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직업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아동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그룹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됐다. 웹툰 시장의 구조와 작가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웹툰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체험 활동에서는 캐릭터를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웹툰작가와와의 Q&A 시간은 아이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작가의 실제 작품을 함께 보며 작업 과정, 연봉, 직업의 장단점 등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누며 웹툰작가라는 직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여 아동들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재미있었다”라며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나중에 꼭 웹툰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자녀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2025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마법의 시간

다문화인식개선 공연
참여가족 모집

새하와 알록달록 색깔친구들

<공연 줄거리>

“색이 섞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한 ‘스케치북 세상’.
그곳에 색이 없는 새하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색이 없는 새하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색깔친구들이 다 모여 탄생한 검은 태풍이 모든 색을 집어삼키며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습니다.
과연, 새하와 색깔 친구들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신청하기>

공연비 무료

참여안내

공연 일시	8월 30일(토) 11:00~11:40
구성	뮤지컬 공연 40분 / 포토타임 10분
대상	부모와 자녀, 가족 단위 신청자 200명 (추천연령 : 미취학어린이, 초등 저학년)
공연장소	북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
신청기간	8월 4일(월) 10시 ~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QR신청

Check Point

※관람하시는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데이에 가족구성원 모두 들어와야 확정)

※기본신청: 각각 회원가입증, 마이페이지-가족대표 설정-가족구성원 찾기 (아래의 회원가입시, sme인증은 부모번호로)

※프로그램 신청: 가족대표자 로그인-프로그램 신청 click-가족구성원찾기(이름검색까지 기다리기)-제3자동의-신청

가족교육팀 031-615-3965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TALK @평택시가족센터

smile family

스마일 패밀리

평택시가족센터 X 인클로버재단

대상: 다문화가족(20~40가족)

[우선순위]

1. 행복한미래플래이 부부교육 참여 다문화가족
2.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가족
3. 단자녀를 양육중인 다문화가족(자녀 수 많을수록 우선)

★ 활동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 모두 신청 ★

내용: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액자제공 등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다목적실

일시: 2025.09.13.(토) 10:00~13:00

신청기간: 07.30(수) 10:00 ~ 08.20(수) 10:00

★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 프로그램 신청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06

신청 바로가기

★ 안내사항 ★

- 촬영을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명단에 없는 구성원은 당일 촬영이 불가능한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가족당 촬영 시간은 약 5~10분 정도 소요되며, 촬영 후 포토샵 작업 및 인화, 액자 제작까지 총 30~60소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액자는 당일 수령 원칙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 중 선정된 가족에 한해 개별 안내 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 촬영본은 평택시가족센터 및 인클로버재단 홈페이지(사업 보고용)에 게시될 예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입니다.
- 미동의 시 촬영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사전 촬영 프로그램의 특성상 동시간대에 여러 가족이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가족별 촬영 시작 시간이 상이합니다. 최종 선정된 가족에 한해 개별적으로 촬영 시간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전촬영 시간이 지연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 준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드린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이력이 있거나 당일 불참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inclover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외국인 노동자도 더울 때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최근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올해 23살인 이 외국인 노동자는 낮 기온이 37.2도인 무더위에서 일을 하다가 앉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

상)'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규칙을 개정한 것이예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등의 내용을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에요.

요.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특히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휴식을 요청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바래요.

〈중국어 하단, 태국어 하단,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外国劳动者在酷暑中一定要每两小时休息20分钟以上... 移动式空调到7月末普及

最近某公寓工地发生了20多岁外国劳动者因温热疾病死亡的事件,让很多人心痛.这名今年23岁的外国劳动者在白天气温37.2度的酷暑中工作时被发现坐着死亡.据说当时这个外国劳动者的体温达到了40.2度.

此次事件发生后,韩国政府决定强制执行一项新规:当体感温度达到33度以上时,劳动者每工作两小时必须休息20分钟以上.

雇佣劳动部在11日召开的规制改革委员会上通过了将“每2小时休息20分钟以上(体感温度33度以上)”等

义务化的《产业安全保健标准相关规则》修订案.由于今年夏季酷暑程度超出预期,为了保护劳动者的生命与健康,政府迅速修订了相关规定.

特别是雇佣劳动部计划努力在现场遵守《产业安全保健标准相关规则》修订案的主要事项.

计划在现场必须遵守的“酷暑安全5大基本守则”▲凉水▲冷气装置▲每2小时休息20分钟以上▲发放保冷装备▲119报警等内容,利用所有媒体积极宣传.

另外决定以6万家酷暑高危企业为中心,对是否遵

守“酷暑安全5大基本守则”进行突击指导和检查.

特别是以小型企业为中心,到7月末为止,将投入包括追加更正预算在内共350亿韩元,完成现场需求较多的移动式空调等的普及工作.

在酷暑中辛苦工作的外国劳动者,如果感到身体疲惫,一定要要求休息.希望在韩国工作的外国劳动者都能度过健康的夏天.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ง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ๆ 2 ชั่วโมง ในช่วงอากาศร้อน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

เหตุการณ์ล่าสุดที่ไซต์ก่อสร้างอพาร์ทเมนต์แห่งหนึ่ง ซึ่ง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ายุ 20 ปี 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าการป่วย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 สร้างความสะเทือนใจให้กับ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วัย 23 ปีรายนี้ ถูกพบว่าเสียชีวิตขณะนั่งอยู่ในที่ทำงาน ท่ามกลางอากาศ ร้อนจัดที่อุณหภูมิสูงถึง 37.2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ในช่วงกลางวัน ขณะเกิดเหตุ อุณหภูมิร่างกายของเขาสูงถึง 40.2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จากเหตุ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ใต้ได้ตัดสินใจออกมาตรการบังคับใหม่ โดยระบุว่า หากอุณหภูมิความร้อนที่รู้สึกได้สูงเกิน 33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จะต้องให้แรงงาน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ทุก ๆ 2 ชั่วโมง 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

เมื่อวันที่ 11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ได้ผ่านการแก้ไข “กฎระเบียบ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อาชีวอนามั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ฏิรูปกฎระเบียบซึ่งกำหนดให้ “ต้อง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2

ชั่วโมง (เมื่ออุณหภูมิความร้อนที่รู้สึกได้ สูงเกิน 33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ช่วงฤดูร้อนปี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ที่รุนแรงกว่าที่คาดการณ์ไว้ได้แพร่กระจ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รัฐบาลจึงได้เร่งปรับปรุงกฎระเบียบเพื่อ ปกป้องชีวิตและสุขภาพของแรงงา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ให้แน่ใจว่าบทบัญญัติหลักของ “กฎระเบียบ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อาชีวอนามั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ฉบับปรับปรุงนี้ได้รับ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จริง

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อย่างเต็มที่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ผ่านสื่อต่าง ๆ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 “กฎ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พื้นฐาน 5 ประการ 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ที่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ได้แก่ ▲ น้ำเย็น

▲ อุปกรณ์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

▲ 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ๆ 2 ชั่วโมง ▲ จัดหา

อุปกรณ์ทำความเย็น ▲ แจกแจกเงิน 119 เป็นต้น

นอกจากนี้ จะมี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และควบคุมแบบไม่แจ้งล่วงหน้า โดยมุ่งเน้นไปที่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ง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จำนวน 60,000 แห่ง เพื่อให้มั่นใจว่าปฏิบัติตาม “กฎ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พื้นฐาน 5 ประการ 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จะมีการจัดหา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และอุปกรณ์ที่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สูง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นาดเล็กเป็นหลัก โดยใช้งบประมาณเพิ่มเติมรวม 35 พันล้านวอน ภายในสิ้น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ทำงานอย่างหนักท่ามกลาง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โปรดขอหยุดพักหากรู้สึกเหนื่อยล้าทันที ขอ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 ที่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 และผ่านช่วงฤดูร้อนนี้ไป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서로의 문화적 배경, 경험 나눠요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국적별 자조모임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다문화가족자조모임 사업으로 국적별 전체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일본과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각 모임에는 국적별로 10명씩 총 20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으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살린 서지컬 팔찌와 키링을 제작했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에게 집중하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깊은 공감과 정서적 위로를 경험했다. 제작 과정에서는 재료 선택부터 색상 매치, 장식 부착까지 모두 참여자의 손으로 이루어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참여자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서 감동적이었다.”, “직접 만든 팔찌와 키링이 너무 예뻐서 계속 착용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자조모임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자립성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국적별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푸드테라피로 스트레스 날려요

평택시가족센터,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4일과 21일 가사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총 6회기)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총 7회기)을 각각 운영했다.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공방인 민씨스튜디오와 연계해 ‘미니 화병과 나만의 접시 만들기’를 주제로 도예 체험 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물레를 활용한 도자기 성형과 페인팅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작의 기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푸드테라피

를 활용한 정서 지원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음식이라는 일상적 매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공방 체험이 처음이었는데 새롭고 재미있었다. 생각보다 몰입하게 되었고, 나만의 접시를 만들며 기분이 좋아졌다”라며 “음식을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고, 내가 나를 돌보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의 감정을 돌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뮤지컬로 재밌게 배우는 다양성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3일 서부복지타운에서 다문화인식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찾아오는 다문화인식개선 뮤지컬- 새하와 알록달록 색깔친구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는 6개 기관 총 147명이 참여했다.

뮤지컬은 색깔나라에서 유일하게 색이

없는 주인공 ‘새하’가 다양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악당 ‘검은 태풍’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이 멋지고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색깔나라 친구들과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다.

뮤지컬 ‘새하와 알록달록 색깔친구들’은 오는 8월 30일 북부복지타운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접수(031-615-3965) 받는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교육비 부담 덜고, 미래 준비'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번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다문화가족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만 7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한국 국적 자녀(학교 밖 청소년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성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비, 교재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예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비, 자격증 응시료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초등학교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연 1회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신청자는 6월 하순에, 7월 신청자는 8월 하순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된 카드 포인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지급되는 농협카드 포인트는 다문화가족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시기가 겹쳐 NH농협카드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시, 소비쿠폰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소비쿠폰 포인트가 전액 소진된 이후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031-660-7477

김영의 기자

평택 가족이 함께한 회복의 시간

평택시가족센터는 7월 16일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제2차 정기 자조모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서적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을 목표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모임은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감정코칭 시간으로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박수로 스스로 응원하기’ 활동을 하며 자기존중감을 높였다. 이어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풍선에 자신의 강점을 적어 몸에

붙이는 ‘감정풍선 이동’ 활동을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 ‘단점 탐색 및 타구공으로 날려 보내기’ 활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마음 나누기 시간도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자조모임이 부모님들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내 유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가족이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요리로 자립과 역할 강화 지원!
용인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식조리교육 진행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19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총 6회에 걸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식 조리 교육 ‘요리쿡조리쿡 행복한 밥상’을 진행했다.

용인시기흥평생학습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요리 실력을 키우고,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강사님이 친절하고, 레시피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들이 먹을 것이니까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고, 같은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상반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며, “하반기에는 향상된 요리 실력을 위한 중급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조리 강사와 협의해 난이도 있는 메뉴를 선정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자립과 가족 내 역할 강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용인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소비쿠폰 신청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를 사칭한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 만큼 휴대폰에 문자가 오면 열지 말라는 것이다.

스미싱 사기 수법으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 안내, 사용 방법, 충전 등의 문자를 보내 첨부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주소를 연결하면 악성 앱이 사용자의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일 시장은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을 통해 접하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하고,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결코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하거나, 악성 앱 설치후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이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031-6193-2114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신나는 여름방학, 용인 물놀이장과 박물관에서 색다르게 즐겨요”



#“무더운 여름, 물놀이장서 시원하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여름철을 맞아 기흥구 동백동 내꽃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꽃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워터버켓’, ‘워터드롭’, ‘워터샤워’ 등 물이 떨어지는 물놀이시설과 바다분수 등을 갖췄으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시설은 매시간 45분간 이용, 15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점검과 청소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비가 올 때엔 운영하지 않는다. 용인특례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4명을 배치했다. 내꽃근린공원 외에도 중앙물빛어린이공원, 놀품어린이공원 등 지역 내 근린공원 10곳에서도 8월 17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중앙물빛.놀품.물잔디.물내음.색동저고리.죽전어린이공원과 한숲햇빛공원, 신봉힐링근린공원 등 8곳의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별다올어린이공원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만현근린공원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무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어린이 등 가족 등과 함께 시원하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했다”며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가까운 물놀이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물관 역사 체험으로 알차게”

용인특례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용인시박물관에서

어린이.가족 대상 역사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용인시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다.

박물관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들이 용인의 역사, 유적, 인물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의 대표적인 신라시대 유적인 보정동 고분군을 알아보고 나만의 유물 드림캐처를 만들어보는 ‘오썩오썩 보정동 고분군 체험’, 광복절을 맞이해 용인의 독립운동과 인물을 배워보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태극기 조형 액자를 만들어보는 ‘다 같이 외쳐보자! 그날의 함성’ 등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 자원과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Ky niem 1 nam thanh lap So Xa hoi Di cu tinh Gyeonggi... Da xay dung 33 nhem vu trong 4 linh vuoc de ho tro nguoi di cu

Tinh Gyeonggi da thanh lap Cuc Xa hoi Di dan vao thang 7 nam 2024 – lan dau tien trong so cac chinh quyen cap tinh toan quoc – nham ung pho voi su gia tang nhanh chóng của dân số di dân và xây dựng một xã hội bao bọc, nơi mọi cư dân đều có thể sống mà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Sau đó, tỉnh đã thiết lập “Kế hoạch tổng thể về xã hội di dân tỉnh Gyeonggi (2025~2027)”, đề ra tổng cộng 33 nhiệm vụ trong 4 lĩnh vực chính: ▲hòa nhập xã hội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ính sách di dân ▲quản trị. Nhân dịp kỷ niệm 1 năm thành lập Cục Xã hội Di dân,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xem chính sách di dân của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thay đổi như thế nào nhé!

■ Triển khai hỗ trợ thực tế gần gũi với đời sống hàng ngày

Tỉnh Gyeonggi đã thành lập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Di dân Tỉnh Gyeonggi tại thành phố Uijeongbu vào tháng 7 năm nay.

Trung tâm này được mở rộng và cải tổ từ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với quy mô văn phòng được mở rộng đáng kể và số lượng nhân lực được tăng gấp đôi. Ngoài ra, dịch vụ tư vấn đa ngôn ngữ cũng đã được đưa vào hoạt động mới. Ngôn ngữ hỗ trợ là 10 thứ tiếng được sử dụng phổ biến nhất bởi người di cư, cung cấp các dịch vụ phù hợp như thông tin pháp luật, lao động và đời sống. Năm ngoái, hơn 10.000 người đã được hỗ trợ tư vấn về giáo dục và các vấn đề dân sự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Tỉnh Gyeonggi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đến năm 2026, cung cấp thông tin về cư trú và đời sống bằng nhiều ngôn ngữ và tích hợp chức năng cộng đồng theo từng quốc gia,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tiếp cận thông tin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giúp tất cả người di cư có thể ổn định định cư trong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 Cải thiện nơi ở và xây dựng nền tảng an toàn lao động

Tỉnh Gyeonggi đã hỗ trợ cải tạo 15 nơi ở xuống cấp để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sống cho lao động di cư, đồng thời thiết lập kế hoạch tổng thể hỗ trợ toàn diện cho lao động di cư.

Đặc biệt, sau vụ hỏa hoạn nghiêm trọng xảy ra vào năm ngoái khiến nhiều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iệt mạng, nhằm ngăn ngừa các tai nạn tương tự, tỉnh đã lựa chọn 15 “Nơi làm việc hạnh phúc” và dự kiến hỗ trợ chi phí cải thiện cơ sở vật chất và môi trường làm việc lên đến 10 triệu won cho mỗi cơ sở sản xuất. Bên cạnh đó, một tổ công tác (TF) cũng đã được thành lập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nhà ở tồi tàn như nhà kính, và hiện đang tiến hành kiểm tra hiện trường định kỳ hai lần mỗi năm phối hợp với 31 thành phố–huyện và chính phủ trung ương. Hiện nay, chính quyền đang thúc đẩy việc thành lập “Trung tâm hỗ trợ lao động nhập cư” chuyên về an toàn và sức khỏe nghề nghiệp.

■ Hỗ trợ cả trẻ em có hoàn cảnh di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Trước đây, trẻ em nước ngoài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giáo dục bắt buộc và cũng không có đăng ký cư trú, nê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ông thể gửi thông báo nhập học. Vì vậy, nhiều phụ huynh nước ngoài đã bỏ lỡ thời điểm nhập học cho con vào tiểu học.

Tỉnh Gyeonggi đã gửi giấy hướng dẫn nhập học đến 2.037 trẻ em là con em người di cư vào tháng 2 năm nay lần đầu tiên trong số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ấp tỉnh trên toàn quốc nhằm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của các trường tiểu học ở khu vực tập trung nhiều trẻ em ngoại quốc do không nắm được tình hình nhập học của các em, cũng như khắc phục tình trạng nhiều trẻ em ngoại quốc không nhận được thông tin nhập học và bị bỏ mặc.

Ngoài ra, để tiếp tục bảo đảm quyền được giáo dục cho trẻ em nước ngoài không đăng ký cư trú, chính quyền đã đề xuất với Bộ Tư pháp kéo dài thời gian lưu trú tạm thời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trẻ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khi còn nhỏ (dưới 6 tuổi), ▲trẻ đã cư trú tại Hàn Quốc từ 6 năm trở lên, ▲trẻ đang theo học hoặc đã tốt nghiệ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tại Hàn Quốc. Đề xuất này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Ngoài ra, đối với trẻ em có hoàn cảnh di cư không đăng ký cư trú và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ăng ký khai sinh, chính quyền đang đi đầu trong việc bảo đảm các quyền cơ bản như giáo dục và y tế thông qua “chế độ xác minh công khai” hỗ trợ cấp giấy tờ tùy thân. <한글 기사 6면>

과과야스토리

KOSME
고용노동부

무역 실무부터 취업 매칭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비자 연계 커리큘럼 및 교육비 전액 정부 지원·전국 수강 가능 ~5.2(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신청방법
국문 이력서(자유양식) 작성 후 이메일(worldcareer@naver.com) 제출

문의처
지엘파글로브 그룹 서울센터 (02-6245-3579)
부산센터 (051-509-5996)

KOSME
고용노동부

K-수출전사 아카데미란?

취업 시작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진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생은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인 'K-Work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 제1기 과정은 5월부터 8월까지, 제2기 과정은 8월부터 11까지 운영예정

모집대상	교육내용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중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200시간의 커리큘럼 구성 - 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 등 실무 중심 교육

전 커리큘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전국 어디서나 수강 가능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 1. 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	-------------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결(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2p



용인시청 1577-1122 용인시가족센터 031-323-7133 용인교육지원청 031-8020-9113~4 용인생명의전화 1588-7262 031-898-2448 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6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89-2210 범죄신고 112 용인동부경찰서 031-1566-0112 용인서부경찰서 031-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네팔 등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기여!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 '2025 네팔 데이'서 감사패 받아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주한네팔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네팔대사관은 지난 7월 2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5 네팔 데이(Nepal Day)'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김용국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용국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경기도와 각 지역 외국인복지센터 간의 협력을 이끌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주한네팔대사관 측은 “김용국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네팔 이주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용국 회장은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외국인복지센터의 모든 동료와 지역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네팔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네팔데이 행사는 국내 네팔 커뮤니티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네팔의 전통공연, 문화체험, 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시민들과 외국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하성 기자

미취업 청년 응시료 어학·자격시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용인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실시된 시험에 대해 응시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도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경기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 시험은 TOEFL, IELTS, TOEIC 등 어학시험 19종을 포함해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한국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단,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사사업에 중복지원은 안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

다문화자녀 대학 탐방

- 일시: 08월 05일(화) 11:00 - 14:00
- 내용: 멘토의 자기주도학습 전수, 대학탐방, 식당체험
- 대상: 용인시 거주 다문화 중고등학생 10명(선착순)
- 참가비: 무료
- 신청: 홈페이지, QR 스캔(두가지 모두)
- 접수기한: 2025.08.01(금요일)까지
- 신청통보: 개별통보
- 문의: 담당자 070-7477-8573

- 출발방법: 1. 센터에 09시까지 집결(대중교통이용, 교통비 개별지출)
or
2. 연세대학교 정문 11시까지



용인특례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용인시가족센터

부부관계회복 심리프로그램 사랑한 DAY 2기

"가까운듯 먼 우리 부부, 함께 있으면 답답한 마음만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화가 잘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한 DAY는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프로그램입니다.

♡ 대 상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부부
2기: 결혼 10년 이상 부부 10쌍

♡ 주요내용

- 부부소통훈련
- 부부간 인정 및 지지연습
- 개인 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역동 이해
- 심리공연 관람

♡ 강 사

최철환 교수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 소장

♡ 위 치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 일 정

9/4 (목) 19:00-21:30
9/11 (목) 19:00-21:30
9/18 (목) 19:00-21:30
9/25 (목) 19:00-21:30

♡ 참가비

부부당 5만원
*시작 2일전까지만 환불가능
*저녁식사 및 다과 제공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QR



문의: 031-323-7135

용인특례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용인시가족센터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지난 7월 16일 서울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에서 ‘행복도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인식개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및 사례관리 ▲자녀교육 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외된 다문화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금랑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연천 지역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천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1인가구, 한부모가족, 군인가족 등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가족센터(031-835-0093)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연천군, 8월 연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보유 한도 상향해요

연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및 보유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충전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충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등 약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총 295억원이 발행됐으며 이중 일반발행액은 167억원으로 16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또한, 연천군은 올해 2월부터 종이형 연천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은 구입 대비 사용률이 높아 이번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 한도 대폭 상향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과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연천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ийн тогтолцоонд цаашид зөвхөн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л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боллоо!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огтолцоо хууль зүйн үндэслэлтэй боллоо. Үндэсний Ассемблей нь өнгөрсөн 7-р сарын 23-нд ИМ Ми Э (пропорциональ төлөөлөгч) гишүүний санаачилсан “Хөдөө аж ахуй,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салбарын хөдөлмөрийн хүчний дэмжлэгийн тухай тусгай хуулийн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ийн тухай хуулийн төсөл”-ийг баталсан. Ингэснээр 7-р сарын 3-нд Үндэсний Ассемблейгаар батлагдсан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арьяатын хян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тэй хамт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огтолцоотой холбоотой хоёр хуулийн төсөл ийнхүү хууль тогтоох үйл явцыг дуусгав.

Хууль зүйн үндэслэл бий болгосны шалтгаан нь?

Одоогийн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ийн тогтолцоо нь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байнгын хүний нөөцийн хомсдлыг арилгах зорилгоор нэвтрүүлэгдсэн ч өнөөг хүртэл хууль зүйн үндэслэлгүйгээр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журмын дагуу хэрэгжиж ирсэн тул тогтолцооны о

лон сул талтай байлаа. Ялангуяа зуучлагч брокер нар оролцож, улирлын ажилчдын цалинг завших, хүний эрхийг зөрчих зэрэг зөрчил гарсан ч хууль ёсны дагуу шийтгэх нь амаргүй байсан юм.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ийн агуулга нь юу вэ?

Өмнө нь батлагдсан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арьяатын хян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 нь ▲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хууль эрх зүйн үндэс суурийг бий болгох ▲ улирлын ажилчдын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г томилох ▲ зуучлагчийг шийтгэх заалтыг шинээр оруулах зэрэг агуулгатай юм.

Энэ удаа батлагдсан Хөдөө аж ахуй,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хөдөлмөрийн хүчний дэмжлэгийн тухай тусгай хуулийн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 нь үүнийг бодитоор сайжруулах “орчны нөхцөлд тохирсон хууль” гэж хэлж болно. Тус хуулийн агуулгад ▲ гадаадын улирлын ажилчдыг тодорхойлох шинэ заалт ▲ стандарт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нэвтрүүлэлт ▲ цалин хөлс, өвчин, нас баралт зэрэг нөхцөлд зориулсан даатгалд заавал

хамрагдах үүрэг ▲ төрийн өмчит гадаадын улирлын ажил эрхлүүлэх газруудыг томилох хууль эрх зүйн үндэс суурь зэрэг багтаж байна. Эдгээр нь бүгд ажлын байрны хөдөлмөрийн нөхцөл боло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асуудлуудыг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хэмжээ юм.

Юу өөрчлөгдсөн бэ?

Цаашдаа зөвхө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томилсон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л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өслүүдэд оролцох эрхтэй болно.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хэн ч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өслүүдэд оролцож, Солонгосы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г холбох, баримт бичиг боловсруулах зэрэг ажлыг хийж болох байсан бол ирэх жилээс эдгээр үйл ажиллагаа хориглогдоно.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биш компани нь улир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өслүүдэд оролцвол хууль ёсны шийтгэл хүлээх болно. (Зураг, 한글 기사 18면)



창의와 상상이 자라는 놀이터

과천시, '달콤샘 놀이터' 다양한 즐거움 제공



과천시는 갈현동 찬우물광장(갈현동 8-55)에 조성한 ‘달콤샘 놀이터’의 개장식을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놀이터는 경기도 ‘2025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됐다.

놀이터(면적 1,940㎡)는 아동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한 조형물과 미끄럼틀이 어우러진 ‘아이스크림 놀이터’, 물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샘물 놀이터’, 모래를 활용한 ‘자연 모래 놀이터’, 보호자와 주민을 위한 ‘초록잎 쉼터’ 등이 마련

됐다. 특히 ‘샘물 놀이터’는 여름철 물놀이 공간으로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과천시는 다양한 소품과 놀이 도구를 비치해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른들을 위한 소규모 운동 공간도 함께 조성돼 온 세대가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달콤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꿈과 상상의 공간, 시민에게는 쉼과 여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7일 갈현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임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 물놀이장은 오는 8월 2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http://gcpool.co.kr/>) 또는 현장에서 예약 후 입장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맨발로 걷는 자연 속 쉼터 마련

과천시, 청계산 황톳길 개장...다문화가족 함께



과천시는 청계산 5-6호 약수터 인근(문원동 306)에 조성한 ‘청계산 황톳길’의 개장식을 7월 31일 개최했다. 개장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황톳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휴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6,3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시비 9,700만 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조성된 황톳길은 총연

장 약 200m의 맨발 산책로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세족시설과 벤치도 함께 설치되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청계산 황톳길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걸으며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천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관악산 황톳길을 기존 50m에서 70m 연장해 총 120m로 확장하고, 족욕 시설 2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 황톳길과 같은 자연 친화형 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과천시 상담학교



비폭력 대화 과정 II

문의.02.503.0070

	일정	교육내용
날짜	9월 4일(목) ~ 10월 30일(목) 매주 목, 총 8회	- NVC 모델로 말하고 듣기 - 자기공감 -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1) -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2) - 공감 / Need 명상 - 거절("No")하기와 듣기 - 선택하면서 살기 - 감사
시간	09:30~12:30	
장소	과천시가족센터2층 누리마루	

접수기간

8월 1일 (금) 10시 ~ 8월 22일 (금)

신청방법

과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필수
※ 교육비 입금안내문자 수신 후 입금이 확인되면 참가신청 완료

대상

과천시민 및 과천시 직장종사자 30명
※ 2023~2025년 비폭력대화 과정 I 수료자 대상

교육비

3만원(교재비 포함)



2025년 과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꽃보다 예쁜 친구들아, 어서와요!

모집 기간
2월 14일 ~ 2월 24일 이후 상시

모집 대상
알콩반: 7세(2019년생)-1학년, 10명 이내
달콩반: 2학년-3학년, 10명 이내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
알콩반: 수요일 창의수학(15:20-17:20)
목요일 책읽기(15:20-17:20)
(목요일 책읽기는 타사의책방에서 진행됩니다.)
달콩반: 화요일 책읽기 (15:20-16:50)

신청 방법
전화신청 후 홈페이지 접수필요

참가비
무료

신청 및 문의
02-503-0070 이미란

☎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11시-12:30) 아이들이 읽는 도서에 대한 학부모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15:20-16:50) 1-3학년 대상 집단놀이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Gwacheon City

과천시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가정교육 1층 101호 (과천시청 1층)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7월 12일 화성시만세센터에서 가족품앗이 참여 가족들과 함께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환상마켓’ 아나바다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육아 환경 조성 and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족품앗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과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정신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참여 가족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져와 셀러로 참여하며 판매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나누고, 판매대 앞에서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육아 경험도 나누는 장이 됐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 ▲목공체험 ▲세계문화 만들기 ▲즉석 여권사진 체험 ▲마술쇼 등 체험 중심의 활동들이 운영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참여 가족들이 함께 만든 행사 현수막 제작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가족품앗이 간 협력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만세센터를 시민들에

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화성시가족센터의 사업 방향과 가족품앗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한 참여자는 “가족센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의미 깊은 하루였다”라며 “플리마켓을 통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공동육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시가족센터는 총 57개 그룹 166가족 450여 명이 참여하는 가족품앗이를 운영 중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가족품앗이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험,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품앗이에 관심 있는 시민은 화성시가족센터(070-8831-3468)를 통해 문의 및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가족교육의 중심! 화성가족행복학교

8월 예비신혼기 부부교실

모집 대상 18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커플) 10쌍
※ 정원 초과 시, 신규참여자 우선 선정됩니다.

접수 기간 ~ 모집 마감 시까지 (선착순)

신청 방법 참가비 무료 / QR 신청 (남편, 아내 모두 신청)

문의 역량강화팀 070-7774-7082

신청 QR

일시	내용	장소	강사명
2025. 8. 2.(토) 10:00-12:00	예비부부 소통교육	다원이음터	전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촉강사)
2025. 8. 2.(토) 12:00-14:00	예비부부 힐링 프로그램 사랑의 징표 '커플 가족지갑' 만들기		정은영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심리정서 & 진로 지원

2025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

· 참여 대상 7세~24세 다문화 아동·청소년 ★ 상시 모집 ★

· 모집일정 홈페이지 접수상담 신청 > 1:1 접수상담 > 맞춤 프로그램 연계

· 참여 신청 및 문의 화성시 가족센터 친화사업팀 담당자 070-8831-9102

참여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요!

심리정서 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8월 예정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나를 이해해 가는 소그룹 활동

정서특강

9월 예정

자기이해와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강의 진행

진로 지원

진로체험

10월 ~ 11월 예정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현장 체험

직업인과의 만남

10월 예정

내가 꿈꾸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키우기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20일, 센터 3층 강당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일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네팔 출신 서저나 씨는 ‘가족 동반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외국인 가정의 고민’에 대해 말했으

며, 두 번째 발표자인 가우담 씨는 ‘이주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마지막 발표자인 바티임란사이드 씨는 ‘화성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바람’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자인 더큰이웃아시아 이용근 이사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팀장은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병희 센터장은 “오늘 포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외국인 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몽골 이주민, 캐리비안베이에서 즐거운 여름 추억 쌓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27일, ‘해피투게더’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몽골 국적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를 방문해 여름 물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

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여가 시간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피투게더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취미·문화 체험, 단합 활동, 공동체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10개국 공동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몽골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고, 한국 사

회와 지역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병희 센터장은 “공동체 활동은 외국인 주민에게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창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미얀마 이주민, 광명동굴서 ‘더위 피하며 체험활동’ 진행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27일, 해피투게더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얀마 국적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광명동굴을 방문해 여름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미얀마 공동체 구성원들은

동굴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무더위를 피하며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했다.

이번 활동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여가’라는 기획 취지 아래,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시원한 동굴 속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가족들이 많아, 세대 간 소통의 기회도 함께 마련됐다.

해피투게더는 화성시 내 외국인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형성과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체험이 단순한 외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外国人季节劳动制度，今后只有专门机构才能参与！

韩国的外国人季节劳动者制度具备了法律基础。今年7月23日，国会通过了国会议员林美爱(比例代表)代表提议的《农渔业雇佣人力支援特别法部分修改法律案》。至此到7月3日国会通过的《出入境管理法修订案》为止，外国人季节劳动者相关制度改善2项法案全部完成了立法程序。

为什么建立法律基础？

现行的季节劳动者制度是为了解决农渔村地区的慢性人力困难而引进的，但是到目前为止没有法律基础，而是根据法务部的方针运营，因此制度上存在很多漏洞。特别是即使中间人介入剥削季节劳动者的工资或侵犯人权，法律处罚也不容易。

修正案的内容是什么？

之前通过的出入境管理法修订案包含了▲制定季节劳动制度的法律依据▲指定季节劳动者专门机构▲新增对中间人处罚条款等内容。

此次通过的农渔业雇佣人力支援特别法修订案可以说是实质性弥补这一缺陷的“现场定制型法案”，从其内容来看▲新设外国人季节劳动者定义▲引进标准劳动合同▲应对拖欠工资、疾病・死亡等情况的投保义务化▲为公共型外国人季节劳动工作场所指定提供法律依据等。这些都是为了改善现实中存在的劳动条件和人权问题而制定的。

有什么变化？

今后只有法务部选定的季节劳动专门机构才能参与季节劳动项目。现在虽然任何人都可以介入季节劳动项目，连接韩国地方自治团体和海外地方自治团体或代理接收文件等工作，但从明年开始禁止这种行为。如果非季节劳动专门机构的企业介入季节劳动项目，将受到法律处罚。

仍然存在的遗憾！

虽然庆幸通过了2个法案，奠定了外国人季节劳动项目的法律基础，但这毕竟是为了国内农户。目前对担任季节劳动项目一大支柱的结婚移民者及其家属没有照顾。

因此韩国政府和地方自治团体考虑到很多结婚移民者及其家人参与季节劳动项目的现实，希望改善制度，使他们能够以较低的费用在想要的地区参与季节劳动项目。

〈한글 기사 18면〉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에서는 지난 7월 13일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식 만들기와 전통차 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활동으로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고운 색감과 정제된 문양이 인상적인 한국의 전통 다과인 ‘다식’을 직접 빚고, 다식과 잘 어울리는 전통차를 함께 음미하며 한국의 미식문화와 다례 문화를 체험했다.

고소한 콩가루와 단호박가루 향이 공간 가득 퍼진 가운데, 하나하나 손끝으로

놀이 빚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정성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활동 이후에는 다식과 차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배경을 가진 이들이 같은 맛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정서가 인상 깊었다”라며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깊은 여운이 남았다”

고 말했다. 김유리 서로장은 “요리나 차를 매개로 한 문화 체험은 언어를 뛰어넘어 마음을 잇는 훌륭한 소통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더함공간서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참여형 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해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4천 원씩 최대 16만 8천 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은 12월 24일까지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이용권(바우처)은 12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등
- 신청방법** 베트남어 : 070-8831-8622
태국 어 : 070-8831-9104
- 지원내용** 학부모 상담, 기관 동행 방문, 모국 서류 및 가정통신문 번역, 정보제공(귀화, 연장, 교육 정보 등)
- 지원신청** 동행 통역 및 번역 사전 신청 필수!
- 문의사항** 031-352-1214 (특성화사업팀 4번)

주의사항

공증 및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 불가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
 HWASEONG FAMILY CENTER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특례시, 청년 대상 하반기 대상자 모집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문화청년이라면 화성특례시의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7월 28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이자를 상환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원 전월 무주택)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1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전세대출금의 최대 2%까지, 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 ▲동 사

업 2025년 상반기 선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활동포인트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생생하게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비다문화가정 학생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7월 12일과 19일,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정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아동이중언어 대면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되던 수업을 한 차례 특별히 대면 형식으로 전환해 진행한 것이다.

대면수업은 강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언어와 문화 체험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수업은 ▲이중언어로 자기소개하기 ▲시장 놀이 ▲전통놀이 즐기기 ▲전통모자 만들기 등 다양한 언어.문화 활동으로 구성됐다.

다문화아동이중언어 대면수업은 결혼 이민자 출신 이중언어 강사들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각 2개 반(평일반.주말

반)씩 총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일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이해를 높이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이중언어 강사는 “비대면 수업에서 화면 너머로만 보던 아이들을 직접 만나니 수업에 생동감이 넘쳤고, 함께 모여 눈을 마주치며 배우는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하반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중언어교육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들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전화사업팀(070-8831-8624, 031-352-1214/2번)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난임 극복 건강한 임신 준비

화성시가족센터, 7월 난임가족지원교실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화.성.가족행복학교’ 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19일 ‘7월 난임가족지원교육(임신준비지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 소통교육(the강정연구소 김현아 소장), 부부 힐링프로그램(아로마스토리 양윤정 강사), 임신 이해교육(화성시 난임위원회 장남일 원장) 강의로 운영됐다.

온전한 부부가 되었을 때 건강한 부모가 된다는 방향에서 ‘부부 상호이해 및 애착 패턴 이해’를 위한 부부 소통교육이 진행됐으며, 건강간식(오븐찰떡) 만들기 클래스부터 올바른 임신 준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참여자 A씨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했는데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임신 후에도 화.성.가족행복학교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화.성.가족행복학교’ 사업을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지원해요

화성글청과 화성유일병원, ‘프로젝트 169’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와 화성유일병원(병원장 허일)은 지난 7월 18일 의료복지 소외계층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프로젝트 169’의 일환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들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유일병원은 미등록 영유아 맞춤형 건강검진(학생 건강검진, 추가 혈액검사, 염증검사, 인바디, X-레이 촬영 포함)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해당 비용은 센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일반 외래진료비 및 입원 치료비, 수술비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센터에서 부담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 가정 자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화성유일병원 아동발달클리닉 또한, 종합심리평가를 통해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을 지원하며 센터와의 연계

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유일병원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 가정에 센터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은이 센터장은 “화성유일병원은 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화성시 프로젝트 169’의 첫 의료기관 협약인 만큼 앞으로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성유일병원 이해경 행정부장은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병원의 방침”이라며, “이 협약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기본 진료를 제때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프로젝트 169’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공적 의료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화성특례시의 후원과 협조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등록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은 물론, 외국인.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양육자 교육도 시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통합적응지원팀(070-4115-1102, 0161/hsgyc1014@naver.com)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생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5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한국음식 쿡’에서는 한국 일상생활 음식인 잡채, 김밥, 진미채 볶음, 삼계탕, 열무김치 등 만들기가 진행됐다.

마지막 회기에는 한국의 전통 예절과 다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었다.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 요리와 예절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입국 2년 차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은 “예절교육과 다도 체험이 즐거웠고,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셔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모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식문화와 예절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한식 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김치 및 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행복 나눔 행사-김치~~’를 통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따뜻한 울림 선사해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참가



화성시가족센터 소속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지난 7월 20일 ‘2025년 전국소년소녀합창제’에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이번 합창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평화의 세상’과 ‘다 잘될 거야’ 두 곡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무대 마지막에는 연합합창으로 ‘우리의 꿈, 우리의 세상’을 공연에 참가한 합창단들과 함께 부르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합창단원들에게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함께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성취감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됐다.

한편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 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가족의 행복 디자인하다... ‘관계의 재발견’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화.성.가족행복학교’ 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12일 열린 아카데미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관계의 재발견’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세바시’, ‘이혼숙려캠프’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이호선 교수가 진행했으며, 화성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풍성한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열린 아카데미는 풍부한 상담 경험을 가진 이호선 교수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며, 세대별 소통의 방식을 공감 중심법으로 접근하여 설명했다.

여성라깅크루 ‘롤링핸즈’의 공연(화성시문화관광재단 연계)도 함께 진행돼 화성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강연이 되었다. 박미경 센터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민대학 수강생 모집해요

화성시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화성시민대학' 3학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화성학 ▲시민학 ▲배움학 등 3개 영역 50개 강좌다. 이번 학기에는 ▲스마트폰 영상 및 숏폼 콘텐츠 제작 ▲AI로 만나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영국의 도시를 걷고, 문화를 만나다 등 과학 기술부터 인문학까지 폭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18세 이상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이수 기준은 출석률 70% 이상이며,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명예학위가 수여된다. 김영의 기자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말을 배워야 꿈이 자랍니다!

대상 화성시가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0세~12세)

내용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주 1~2회(1:1 교육 진행, 1회 40분)

장소 화성시가족센터(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방법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언어발달 교육을 신청하는 '재난이름'으로 회원가입 필수)

문의 특성화 사업팀 070-8831-8622

